일본강소기업 No.20

엠네스(エムネス)
멀리보고 천천히 가는 전략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広島市西区三篠町3-19-4
- 분　야 : 원격 화상 진단 서비스
- U R L : http://www.mnes.org

2) 기업 소개

□ 성장 배경

ㅇ 엠네스(エムネス)는「의료 영상 토털 컨설팅」을 목표로 지역밀착형 의료 영상의 원격진단을 주로하고 있음

- 현재 25개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고객들은 본사를 둔 히로시마(広島)현에 위치한 병원을 중심으로 시마네(島根)현, 에히메(愛媛)현, 야마구치(山口)현으로 확산되고 있음

- 사업 확대 배경에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(CT)와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(MRI)로 찍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있음

- 현재 전문적으로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의사는 히로시마현 안에서도 수십 명 정도 밖에 없으며, 그 대부분 역시 대형 병원에 소속되어있음

- 특히 CT는 대부분의 병원이 갖추는 표준적 설비이지만 창업 후 6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의 전문의 부족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함

- 또한 지방 병원에서는 모든 분야의 전문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한 의료사진을 보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

- 한편 개인병원의 의뢰를 받아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 영상 진단 서비스의 요구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

○ 원격 화상 진단 시스템의 요금은 한 달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15만 엔이며 그 외 추가적인 판독 요금으로 건 당 2,000엔에서 3,000엔을 받고 있음

- 시설과 통신 설비는 물론 컴퓨터 업데이트도 모두 이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의 초기 투자가 필요 없어 도입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장점임

□ 지역 밀착으로 차별화

○ 의료영상 원격 진단 사업의 확대를 위한 최대 관건은「판독 보고서의 높은 질과 병원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구축」으로 보고 있음

- 많은 물량을 취급하는 대형 업체의 경우 고객과 병원의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촬영한 화상과 판독한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강함

- 그러나 이 회사는 고객 병원 각각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상담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일도 자주 있음

- 판독 보고서는 사진을 받고 48시간 이내에 보내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표준적인 CT 영상을 판독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30분 정도임

- 판독을 담당하는 전문의는 상근 6명, 비상근 2명이며 모두 일본의학방사선학회 전문의회의 인정을 받은 판독 전문가들로 수년간의 임상 경험도 가지고 있음

○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는 일부 종합디지털통신망(ISDN) 회선을 포함하여 대부분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선(ADSL)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병원과 회사가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음

- 그동안 매년 5개씩 고객 병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병원을 돕고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 회사의 경영방침이 알려지면서 계약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

□ 전문의 확보가 관건

○ 이 회사의 경영철학은 '양보다 질'을 추구하는 것으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큰 미래의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음

- 이미 인프라를 선행 투자해 고정비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완성시킨 상태임

- 기존 고객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계약 병원 수를 늘려가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- 그러나 반드시 두 명 이상의 복수의 전문의에 의한 판독 보고서 작성 등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의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